

圖書館資料의 損失과 消耗問題

發表者 鄭 駢 謨

(中央大學校圖書館學科講師)

1. 問題의 概要

우리나라에서도 近年에 이르러 圖書館活動이 活氣를 띄기 始作하였고 圖書館員들의 自覺은, 이제까지, 受入된 圖書를 分類하고 編目하여 藏書를 組織化하여 그 資料를 保管하는데만 汲汲했던 過去의 近代的인 圖書館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가장 적은 경비로 가장 많은 사람에게 가장 効果적인 讀書를 할수있도록 可能한 한 最大의 奉仕를 한다는 現代의인 圖書館의 使命을 다하기 爲하여 다같이 여러가지 奉仕活動에 마음을 傾注하고 있는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여러가지 奉仕活動을 해나아가는데 있어서 豫期치않은 여러가지 問題가 야기되고 있는것을 다같이 體驗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問題들 가운데에서 圖書館資料의 損失과 消耗에 따르는 問題에 對해서 잠시 論議하고자 합니다.

한 圖書館에 資料의 蓄積이 많아지고 讀者의 利用이 頻繁해질수록 그 消耗도 甚해지고 損失도 많아지는 것은 避할수없는 事實이다. 더욱이 圖書館資料는 館外貸出等の 方法에 依하여 讀者에 對한 service가 強化되면 強化될수록 資料의 回轉率은 높아지고 藏書全體의 損失 消耗率이 높아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大學圖書

館에서는 參考圖書閱覽室이나 定期刊行物 閱覽室을 除外하고는 開架式 閱覽을 하는 곳이 別로 없는 것으로 알고있으나 中高等學校圖書館等 開架式 閱覽을 主로하는 圖書館에서는 閉架式的 境遇보다 損失과 消耗率이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損失과 消耗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損失에는 亡失(紛失)과 毀損이고 亡失의 境遇는 ① 一定한 讀者가 紛失하는 境遇와 ② 圖書館側에서 長期間에 걸쳐 不知中에 不在圖書가 나타나거나 或盜難事故를 豫想할수있습니다.

毀損은 ① 圖書內容의 一部를 切取했거나 脫落되었을 境遇와 ② 쥐나 害蟲이 圖書를 損傷했을 境遇를 들수있으며

消耗는 讀者의 利用度가 頻繁한 圖書가 오랜동안에 남아서 圖書의 裝幀等이 破損되는 境遇를 말합니다.

以上에서 말한 損失이나 毀損된 圖書를 그대로 讀者의 利用에 供與하거나 公開書架에 配列해둔다는 것은 利用者에게 不快感을 줄뿐만 아니라 圖書에 對한 魅力을 잃어버리게 될것입니다.

圖書의 損失 問題들은 事前에 그 最善의 豫防策이 必要함은 勿論이거니와 頻繁한 利用에 依한 消耗는 不可避한 것이며 이러한 圖書는 再製本을 한다면지라도 完全을 期할수는 없다. 結果的으로 이러한

問題를 當面할 境遇 우리는 그 對備策이 講究되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問題들은 적어도 每年 一回程度의 圖書點檢結果에서 크게 問題되는 것이나 過去에 있어서 大部分의 圖書館이 이 重要한 問題에 對해서 그 對備策이 看過되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또한가지 附言할 것은 不用圖書의 處理問題이다. 大學圖書館에 있어서는 教育과 研究의 두가지 要素가 重視되어 教育問題를 爲主로하는 學校圖書館이나 教養과 娛樂를 爲主로하는 公共圖書館等에 比하여 不用圖書의 處理가 크게 問題되는 것은 아니나 資料增加에 依한 空間利用의 問題는 例外가 될수 없으므로 그 處理問題도 考慮해야 할 것입니다. 藏書의 量을 重視하느냐? 藏書의 質을 重視하느냐? 하는 것은 當大學全體의 行政에 關한 問題이나 Shores, Louis는 이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研究圖書館에서는 累積과 受入에 專念해도 좋으나 教育의 意圖를 가지는 圖書館에서는 除籍을 考慮해야한다. 教育目的으로 奉仕하는 圖書館이 研究의 野心의 犧牲이되지 않도록 하기 爲해서는 藏書數의 限度를 35,000程度로 制限하고 每年 500卷을 受入하면 500卷을 處分한다고 하는 方針으로 하는것이 좋다.』 如何間 圖書館에 收集된 資料가운데 技術에 關한 圖書나 科學書 或은 topic의 內容의 圖書類는 時間이 흐름에 따라 退化하고 그 內容이 文獻의 價値를 점차 喪失합니다.

그러므로 以前에 購入한 圖書와 同一한 主題를 取扱한 것으로써 그 內容이 더 時勢에 適應한 良書가 出版되곤 한다. 이러한 觀點에서 英國의 Lionel Roy McColvin

은 The theory of book selection for public library.에서 圖書의 平均壽命에 對하여 小説은 3年~4年, 兒童圖書는 2年半~3年 小説以外的 圖書는 7年~8年이라고 한다. 이說에 依하면 모든 圖書는 그 購入後 大略 平均 五年에 걸쳐 損耗한다는 結果가된다. 이것은 圖書館活動이 活潑한 나라에서 볼수있는 現狀이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것을 倍로하여 平均 十年에 걸쳐 損耗한다고 假定한다 할지라도 設立後 10年以上이 經過한 圖書館에 있어서는 年平均損耗率은 10年前增加率과 同一할 것입니다. 如何間 圖書館資料는 그 量에 있어서나 그 藏書構成에 있어서나 항상 一定한 標準을 세워 補充해 나아가야 할것이다.

2. 實際問題와 그 對策

以上에서 말한 圖書의 損失이나 消耗 또는 文獻的價値를 喪失한 不用圖書等の 問題에 對해서 우리는 現狀 그대로 放置해 둘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같이 부질없이 損耗하는 圖書를 補充해야 한다는 것은 必然的인 事實이다. 그러나 이에 對해서는 一定한 對策과 各各의 境遇에 따르는 諸規定이 있어야할 것입니다. 即 圖書館資料의 損耗處理規定이 있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規定이 없이는 이러한 問題에 當面할 때마다 圖書館員은 그 處理에 難處한 境遇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各圖書館에 이러한 規定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다. 다만 圖書館閱覽規定等に 利用者가 圖書를 紛失했거나 破損했을 境遇 이에 對한 倍償을 한다는 規定이 있을것입니다. 이問題는 例外로하고 그러면 圖書館에서 長期間에 不知中에 滅失한 圖書는 勿論 最善을 다하여 探索해야 할것이나 그 探索이 不可能했을때 어

떻게 處理하느냐가 問題입니다. 推測컨대 아마도 우리 圖書館員들은 擔當者가 薄俸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補充했거나 問責을 當하고 圖書館의 別途의 豫算에서 支出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規定을 制定하기 爲해서는 于先 부질없이 損失, 破損되거나 그 內容의 價値를 喪失한 圖書를 每年 적어도 한번씩은 正式으로 點檢調査하여 各各의 境遇에 對한 每年의 統計結果를 根據하여 制定되어야 할 것입니다.

例로 每年 損失圖書는 平均 몇冊이며 破損 및 消失圖書는 몇冊 인데 製本可能한 것이 몇冊 不可能한 것이 몇冊이며 內容의 價値를 喪失한 不用圖書는 몇冊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每年 相當한 圖書 補充費가 必要하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 判明되어 이것이 圖書補充費로서 每年 豫算에 反映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圖書館의 圖書購入費라고 하던 으레히 新刊圖書의 購入費라고 생각되어, 이러한 圖書의 補充費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않았다. 그러나 圖書館이 相當한 額數의 圖書의 補充費를 準備하지 않고서는 完全한 service 活動을 해나아가기 어려운 것이며 또한 이 規定에는 破損 또는 消失된 圖書로서 廢棄補充할 것과 再製本할 것에 關한 基準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破損된 圖書라 할지라도 그 圖書가 그 內容에 있어서 앞으로의 利用價値를 喪失했을 때에는 차라리 廢棄處分하고 同一한 主題의 利用價値가 많은 圖書를 補充하는 것이 보다 有效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圖書內容이 利用的價値를 喪失한 不用圖書의 廢棄基準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不用圖書의 廢棄란 物體로서는 完全할

지라도 文獻의 價値가 없어서 不用品으로 判定하여 廢棄處分하는 것임으로 不用品으로 處理될 境遇, 아직 使用될수 있지않은가 하고 責任을 추궁하지 않을가 念慮되어 或은 藏書數가 많은것을 자랑하기 爲하여 實際問題로서는 廢棄가 좀처럼 行해지지 않는 現狀이다. 이 가장큰 原因은 公的인 基準으로서 이러한 程度의 것은 廢棄해도 좋다고 安心하고 廢棄할수 있는 基準이 定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 基準에 依하여 具體的으로 不用의 圖書라고 決定하고 處分하는 權限이 館長에게 賦與되어야한다. 廢棄基準은 圖書의 資料의 生命을 檢討하는 基準임으로 科學, 技術의 進歩에 따라서 時代에 뒤떨어진 科學書, 經濟의 事情이나 時代의 推移에 依하여 內容이 變하는 經濟 商業關係書, 새로운 發見이나 學說의 立證에 依하여 새로운 解釋이 加해져야할 理論書, 教育課程의 改訂等에 依하여 內容의 取扱이 變更된 學習參考書類等이 그 基準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廢棄된 圖書는 어떻게 處理하느냐? 이것은 各圖書館의 事情에 따를 것이나 場所의 餘裕가 있으면 잠정적으로 別書架에 保管하거나 或은 活字로 賣却하여 그 代金을 圖書補充費에 用하는 것도 좋은 方法이라고 생각합니다.

以上에서 말한 모든 處理問題는 物體나 形態만의 圖書에 있어서도 渴症을 느끼고 있는 우리의 現實下에서는 한낱 妄想이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眞情한 圖書館을 이룩해나아가고, 참된 圖書館奉仕活動을 해나아가기 爲해서는 우리 圖書館人들 스스로가, 人類의 知的文化財를 繼承하고 保全하면서, 또다시 文化를 새로히 創造하고 더욱 擴充發展시켜 가는데 있어서의 하나의 奉助者라는 使命感을 가지고 獻身하여 開拓해나아가야 할 것입니다.